레슬리 앨런 박사, 에스겔, 강의 14, 이집트의 멸망
에스겔 29:1-32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14회차, 이집트의 멸망, 에스겔 29:1-32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29-32장을 보면서 이 다리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이 메시지는 모두 이집트를 향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10월, 10년, 10월, 그 달의 12일의 시작 날짜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처음으로 역행을 하게 되고, 전작보다 빨라지게 됩니다. 26장 1절에서 우리는 열한째 해, 즉 그 달 초하루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로 돌아가서 이집트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로 묶을 때 연대순으로 약간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29:1, 10, 12의 이 날짜는 587년 1월을 가리킨다. 그 해는 확실히 유다의 수도가 함락되기 전이었고, 따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었다. 그리고 이 연대는 29:1-16에 있는 세 메시지 중 첫 번째 내용, 즉 3-6a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NIV가 6절 하반절로 새 메시지의 시작을 정한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의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부분에 대한 비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새로운 RSV는 그것을 6절의 전반부와 연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은 다가올 유다의 몰락에 대한 에스겔의 부정적인 타락 전 사역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이집트 군대의 개입을 통해 바빌로니아의 공격으로부터 구출되려는 유다의 희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17장 15-17절에서 에스겔이 시드기야가 이집트 바로와 협상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들에게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일반적으로 언급했던 흥미로운 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 이집트 군대에 대한 희망이 유대 남부 국경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하, 드디어 유대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사실상 이 캠페인에 대처하기 위해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작은 캠페인은 분명히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

이집트인 들은 격퇴당했고, 바빌로니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은 애굽에 대한 호소로 인해 사라졌고, 애굽의 성공으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6b-9a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유다의 동맹국인 이집트의 반격이 실패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9-32장의 애굽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모두 에스겔의 타락 전 사역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25-28장을 보면 그것이 그의 타락 후 예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돌아갔고 외부 메시지의 두 부분이 특정한 순서로 배치되었습니다.

587 이후, 587 이전. 우리는 29-32장이 24장 다음에 나오고 25-28장이 33장 바로 앞에 오도록 역전시켰을 것입니다. 이는 흐름의 전환과 에스겔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서 2판이 좋은 소식을 기대하도록 선택했으며 이것이 25-28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들의 배열은 책 전체의 특징인 구조적 배열과 일치합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3-6a절은 1-24장 대부분의 주제를 이어갑니다. 987명, 바로잡자, 597명의 유배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시며 곧 그들을 본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틀렸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예정이었고, 이집트로부터 구출될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동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초강대국인 애굽도 고대 근동에는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형벌하시는 암묵적인 대리자인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로도 애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부분인 파라오에서는 파라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파라오에 대한 수사적인 메시지입니다. 597명의 유배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동물로 특징지어지며, 그가 나일 강에 사는 괴물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어일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때때로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혼돈 괴물의 배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조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나일강 영토의 주인이자 심지어 그 제작자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나일강의 관개는 이집트 번영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괴물을 추적하여 그를 물리치고 그와 그의 백성을 멸망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망할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예언은 이집트가 실패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6b절부터 9a절까지는 애굽의 반격이 실패하고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격퇴하고 포위를 재개하기 위해 돌아온 조금 후에 나온 것이다 . 이 메시지는 유다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이집트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갈대 지팡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집의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갈대보다 길지 않은 지팡이를 파라오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키가 큰 갈대는 나일강에서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나일강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유는 유다 역사의 초기에 유다도 도움을 얻기 위해 이집트에 접근했을 때를 회상하는데, 이번에는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36장이며, 6절에서는 앗수르 사절이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찌르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31장과 1절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언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31:1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화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를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이집트로부터 도움을 얻으려는 히스기야의 정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1에서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앗수르 사신도 같은 말을 하다가 이 상한 갈대에 대하여 말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흥미롭게도 두 장 모두 린(le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7절에 나올 동사입니다. 그들이 너를 의지하매 네가 부러져 그들의 다리를 다 약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36.6년에는 이집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동사입니다. 당신은 부러진 갈대인 이집트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서 당신은 말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애굽 말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기대라는 뜻의 동사와 같습니다.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통적인 신앙 어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갈대는 갈대 지팡이니 네가 그것을 의지하면 그들이 너를 의지하였고 유대 사람들이 너를 의지하매 네가 부러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다가 애굽에 도움을 청함으로써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암시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실수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손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었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칼을 사용하여 그를 물리치실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9절부터 16절까지이며, 이전의 두 메시지를 반영하고 더 넓은 맥락에서 설정합니다. 이는 애굽에 대한 심판 이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587년 이후 사역에 속하는 책의 신탁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애굽이 회복될 것이라는 인정도 있습니다. 애굽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와 같은 패턴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유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집트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더 이상 정치적 초강대국으로서가 아니라 제3세계 국가로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경우에 이집트는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유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것이며, 유다가 이집트에 군사적 신뢰를 두려는 유혹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유다와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는 참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메시지는 에스겔의 587년 이후 사역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의 587년 이전 예언의 주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회복에 대해 말할 때에도 애굽의 멸망이라는 동일한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9세, 17세, 21세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놀라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날짜가 마지막 날짜로부터 16년 후인 571년 3월로 앞당겨집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책 전체에서 가장 늦은 날짜입니다.

40장 1절은 가장 늦은 날짜인 573년을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571년에 해당합니다. 제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나. 이것이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그 내용이 주로 이집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티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초기 신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 이집트가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메시지를 읽어 보면, 두로의 멸망에 관한 에스겔의 메시지가 선지자가

묘사한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 포로들로부터 에스겔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이제 우리는 두로가 포위됐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포위 공격, 즉 바빌로니아의 티레 포위 공격이 13년 동안, 아마도 약 586년부터 573년까지 지속되었다는 전승을 보고합니다. 군대는 결국 섬을 장악하게 되었고, 바빌로니아 군대는 티레의 찬장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는 수년에 걸쳐 소진되었거나,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스위스 은행, 확실히 티레 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 바빌로니아 군대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약탈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몹시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유배자들은 이 불평을 듣고 그것을 막대기로 사용하여 에스겔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 땅으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좋은 일들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 자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난의 근거는 에스겔이 약탈에 관해 말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티레를 정복할 때 약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급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로 의 운명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 두로가 정복되었고, 570년경으로 추정되는 바벨론의 왕 인질 명단이 있는데, 그 왕 인질들 중에 두로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유다 왕 여호야김처럼 확실히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빌로니아 기록을 통해 약 564년에 두로의 통치 왕이 바빌로니아 고등 판무관으로 교체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은 두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 결국에는 그 지역을 하나의 지방, 바벨론의 지방으로 다스리게 되었고, 그들 자신의 관리들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스겔이 26장과 5절에서 약탈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군대를 구성한 외국 부대인 나라들에게 약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12년에 그들은 당신의 부를 약탈하고 당신의 상품을 약탈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틀렸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는가? 그의 비평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 여기에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대신 위로의 상으로 이집트로부터 특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568년에 이집트를 침공했으며, 그 캠페인은 이미 571년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그가 말한 것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수사학적 장식이 예언적 메시지에서 한 역할을 하여 그 메시지와 그 일반적인 주제에 감정적 지지를 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벨론에 대한 긴 메시지인 예레미야서 50장부터 51장까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다! 실제로 539년에 키루스의 군대는 조용히 도시를 점령했고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그들은 현 통치자에게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키루스의 장악으로 확실히 제국의 권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그 신탁은 사실이었지만 수사학적 장식을 곁들인 결과는 파괴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평화로운 인수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약탈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불만을 품은 군대가 대안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개 메시지는 15-20절이고, 에스겔에게 보내는 사적인 메시지는 21절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 그 개인적인 메시지는 당황한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선지자에 대한 목회적인 확신입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너희 입술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뿔은 이스라엘 집의 번영과 영광을 말합니다. 그 긍정적인 메시지는 실현될 것이고, 또한 당신의 예언 사역을 통해 나는 당신의 입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낡은 상징적 행위의 종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가질 수 있게 하신 확신을 가리킨다. 그의 메시지의 성취를 통해 그는 그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이집트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전조였습니다.

망명자들은 결국 복원되어 재활될 것입니다. 이제 30장에 이르렀습니다. 30장의 1절부터 19절까지의 메시지 모음은 전체 장을 하나의 문학 그룹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전 메시지의 초기 시기인 5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암묵적인 교훈은 이집트가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 군대를 결정적으로 몰아낼 것이라는 포로들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 대신 오늘 여호와의 날이 애굽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에 관한 예언적 주제를 사용합니다. 슬프게도 그 날은 31장 2절입니다. 3절, 그날이 가깝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그날은 구름의 날이요, 멸망의 때가 될 것이다.

칼이 이집트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와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신탁에서 자주 등장하거나 적어도 가끔 등장하는 예언적 모티브를 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옮겨지고, 여호와께서 적대적으로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이집트는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여호와의 날의 주제를 선택하여 유다에 적용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애굽과 유다의 심판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유대 용병을 포함하여 애굽의 연합군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흥미롭다. 이집트 남부에 엘레판티네(Elephantine)라는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남쪽 국경에 위치하여 남쪽의 공격을 방어하는 군사요새였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유대인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 기간 이후 엘레판틴에서 예루살렘, 페르시아로 보낸 서신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유대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NIV의 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언약의 땅 백성을 애굽의 용병들 가운데서 언급합니다. 10-12절은 칼을 설명하는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4절에는 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칼이 애굽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역사적 용어로 설명됩니다. 10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치리라 하십니다.

그와 그의 백성은 열국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자들이라 바빌로니아 군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에도 그들의 동맹국, 제국의 동맹국, 바빌로니아 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나라의 가신 군대가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고통을 당하고 압도당할 애굽의 도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망명자들이 반갑지 않은 진실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감정적 격렬함을 표현합니다. 이집트는 유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30절에 나오는 메시지에는 고유한 날짜가 있습니다. 1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7년째 되는 달. 그리고 이는 29.1의 초기 날짜보다 두 달 늦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587년 3월이고 우리는 여전히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오라클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바빌로니아인들은 예루살렘을 도우러 왔던 이집트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이제 포위 공격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방자의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2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적인 메시지에서 신학적 해석이 주어집니다. 죽을 사람아,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도다.

그것은 낫게 하기 위해 묶인 것이 아니며, 칼을 휘두를 만큼 강해지도록 붕대로 감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포위 공격을 해제하려는 이집트의 시도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없을 만큼 바로의 팔을 결정적으로 부러뜨리셨고 , 그는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공개 메시지를 보증합니다. 그것은 장래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공격할 또 다른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의 이중 공격.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합니다. 내가 그의 팔, 곧 강한 팔과 부러진 팔을 부러뜨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겠다.

이해하기 어려운 심정이군요. 그리고 제안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이집트에 대항한 두 번의 캠페인이 언급된 것이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는 육지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부러진 팔을 다시 부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의 지상군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해상 함대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검객이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568년에 이집트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그러나 그다지 강력한 캠페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침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의 메시지나 느부갓네살의 애굽 패배에 대해 말한 이전 메시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기원전 525년에 이집트를 잔인하게 정복한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에 관해 불길한 예감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장에 나오는 그의 메시지는 그의 동료 유배자들의 희망에 대해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거부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군사 지원과 같은 쉬운 출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향에 있지 않았습니다. 31장에 이르면 이제 새로운 날짜가 나옵니다. 11년째 셋째 달 초하루.

우리는 이 외국 신탁에서 연대 측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는 책의 결정적인 부분이 지속적인 날짜 순서에 따라 구별되는 구조적 패턴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의 흥분에는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에스겔은 포위 공격과 관련된 일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꽤 많은 숫자를 제공하는 다른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20년으로부터 두 달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587년 5월에 이르렀고, 이것은 여전히 포위 시간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31절에 작지만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2절부터 9절, 10절부터 14절 , 그리고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3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앗수르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 레바논의 백향목, 앗시리아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집트와 대조합니다.

글쎄요? 그렇죠?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앗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약간 불만스러워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함께 거대한 나무를 가리키는 매우 유사한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언급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도할 때 2절에 나오는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누구와 같습니까? 이것이 정보를 찾고 계속되는 진정한 질문인가요?

아마도 아시리아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앗시리아만큼 위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앗시리아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질문이라면 아시리아가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에서 아시리아는 2절의 질문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수사적 질문이 아니라 역사적 참고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것입니까? 수사학적 질문인가요, 아니면 답을 기대하는 실제 질문인가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18절에 그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나무 중에 영광과 위대함에 있어서 당신과 같은 나무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 수사적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이집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가 가장 크다.

그런 다음 은유로 넘어갑니다. 은유의 탐구.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 나무와 비교할 수 없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 나무라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인기 있었던 주제를 불러옵니다. 세상, 땅은 큰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까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뿌리는 지하수에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세계를 상징하며, 비교할 수 없음을 비유한다.

비교할 수없는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그런가요? 당신은 정말로 그런가요? 이 나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들리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은유를 탐구하면서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우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겪으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산 백향목들에 비할 수 없는 것을 언급합니다. 전나무도 가지와 같지 않습니다 .

플라타너스는 그 가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없더라.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이 만들어 아름답게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시기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나무에 대한 은유와 에덴동산에 대한 다른 개념이 혼합된 것을 얻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과 함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유적으로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 큰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영원하고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지속적인 힘에 맞서는 이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예, 초능력입니다. 네, 정말 강력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잘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은유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우주의 나무처럼 그 모든 성취와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 나무는 유다를 방어하려던 애굽 군대를 바벨론이 패배시켰다는 언급을 통해 공개적으로 애굽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높이는 10절에서, 이 거대한 나무는 이집트의 자존심, 홀로 가는 것, 이집트의 자급자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집트 나무가 쓰러지는 원인이 되는 비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높이는 이집트인의 높고 강력한 자존심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잘려져 생명이 없는 가지들로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의 나무가 죽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바벨론 이 애굽 군대를 패배시킨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참조가 의미하는 바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장례식 애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신탁은 장례식에 대한 애도일 수도 있습니다. 31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그렇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장례식 애도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거형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모스 5장의 시작 부분에서 그 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미래에, 아주 확실한 미래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일어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집트 망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빌로니아인들이 582년에 이집트를 공격할 때 할 수 있었던 것과 확실히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곳에서 훨씬 더 강력한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11절 끝에서 나는 그것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쫓았다. 이는 이집트의 유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582를 넘어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5-18절에는 이 세 번째 메시지 15-18절의 언어로 불러일으키는 장례식 애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아침 의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국력은 이미 저 아래 지하세계에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생존자가 마침내 무너진 것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집트도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18절은 2절에서 바로에게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가리킨다. 평범한 3인칭 해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스겔은 여전히 동료 전쟁 포로들의 낙관적인 태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위협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그 희망을 이집트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낙관론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집트는 그야말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고,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징벌 목적.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바로는 마침내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적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32장은 이러한 외국 메시지의 마지막 장이며 여전히 애굽을 다루어야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짧은 메시지, 즉 네 개의 짧은 메시지를 그룹화한 것입니다. 3~8, 9~10, 11~14, 15~16.

모두 여전히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집합적으로 애도라고 불립니다. 2절에는 이러한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 애곡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16절 끝에는 애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것은 애도입니다.

그것은 노래되어야 한다. 전국의 여성들이 이를 외칠 것이다. 애굽과 그 모든 무리에 대하여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애도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심판의 신탁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는 단순한 심판의 신탁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서는 하늘에서도 애통을 요구합니다. 하늘은 이집트를 위해 슬퍼해야 한다. 8절: 하늘의 모든 빛나는 빛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며 네 땅에 흑암을 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9장 전반부에서는 내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큰 나라 이집트를 대표하여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것은 주로 단순한 심판의 신탁입니다.

그러나 32장의 시작 부분에 새로운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85년 3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쯤 함락되었습니다.

587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전쟁 포로들은 지금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1절에서 6절은 애굽이 예루살렘을 구출할 것이라는 희망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29절, 3절에서 6절의 재발행처럼 읽혀집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대한 바벨론의 지배를 용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전쟁 포로들이 있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 우리는 그들이 대규모 반격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포위 공격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2절에서 바로를 국제 정글의 왕인 사자로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예, 고려할 만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나일강의 악어이지만 실물보다 더 큰 악어라는 두 번째 비교를 전개합니다.

또 혼돈의 괴물이군요. 악어와 혼돈 괴물의 조합은 이집트에 대한 초기 신탁에서 우리가 가졌던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에 맞서 하나님의 역할은 사냥꾼이 되어 이 짐승을 사냥하고 그 생명 없고 거대한 시체를 산과 계곡에 흩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집트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공격과 함께 하나님이 이집트 괴물을 사냥하신 것을 식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집트에 대한 추가 공격, 파괴적인 공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우리는 애굽의 메시지와 외국에 대한 메시지의 끝을 알리는 다음 신탁인 17-32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의 군사력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다. 여기에는 개월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2년차에요. 네, 신형 RSV를 보면 한 달 분량이 나오네요. 12년째 정월 15일에 각주가 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70인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읽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필사 개정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원본 텍스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지금은 아니, 32절 1절에는 12년 12월, 여기에서는 12년 1월입니다. 글쎄요, 과거로 돌아가서 칠십인역이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85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그보다 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집트 군대의 최종 패배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지하세계로의 추락이라는 관점에서 그 패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이집트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영예로운 매장과 지하 세계의 영예로운 장소를 다른 두 그룹, 즉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칼에 의해 폭력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운명과 대조합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의 더 낮고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이집트는 명예로운 곳이 아닌 이 더 나쁜 곳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분명히 지하 세계에 있는 이 부끄러운 장소에 할당될 것이었습니다 .

이것은 이집트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또 다른 특징은 이집트가 한때 강대국을 행사했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설정되어 있고 그 목록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들은 이제 단지 공허한 기억일 뿐이고 박물관의 유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세계에는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한때 고대 근동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앗시리아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통치했던 바빌론 동쪽 엘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 기원전 8세기에 한때 앗수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사해 남동쪽의 메섹 투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나 히틀러 치하의 독일처럼 역사가들에게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단지 역사가들에게만 관심거리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

그리고 29절과 30절에는 몇몇 다른 나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관점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 메시지를 되돌아보면 죽음과 지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26, 28, 3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침내 32장에서 크고 길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세계와 관련된 외국의 운명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적인 집착은 유다에 대한 에스겔의 부정적인 메시지의 일반적인 취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다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성은 죽음과 지하 세계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삶에 대한 집착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장부터는 생명과 생활이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삶의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삶은 우리가 이전 장에서 암시하거나 표현했던 모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33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3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14회차, 이집트의 멸망, 에스겔 29:1-32입니다.